

## 뉴욕, 보행자 중심의 '퓨처 오브 피프스' 재설계 제안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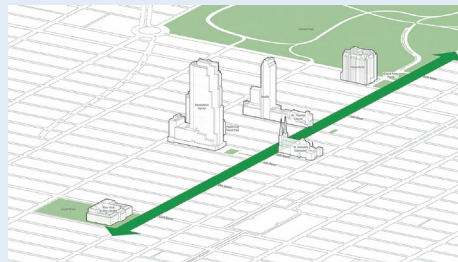
[https://www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769-24/mayor-adams-future-fifth-partnership-transformation-fifth-avenue-world-class-](https://www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769-24/mayor-adams-future-fifth-partnership-transformation-fifth-avenue-world-class)  
<https://archinect.com/news/article/150451238/new-york-city-previews-initial-pedestrian-minded-future-of-fifth-redesign-proposal>  
<https://futureoffifth.com/>

미국 뉴욕시가 맨해튼 미드타운의 5번가(Fifth Avenue)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인 '퓨처 오브 피프스(Future of Fifth)'의 설계 초안을 공개하였다. 이는 5번가가 조성된 지 200년이 지난 후 처음 시도되는 재설계이며, 센트럴 파크 사우스(Central Park South)에서 브라이언트 파크까지의 구간을 포함한다.

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5번가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자 공공공간으로 변모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곳에서 더 많은 경제·상업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. 뉴욕시에 따르면 5번가를 오가는 교통 유형을 조사한 결과 70%가 보행자로 나타났다. 매일 평균 5,500명, 휴일에는 최대 2만 3,000명의 보행자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나, 인도는 전체 공간의 46% 정도에 불과하다. 에릭 애덤스(Eric Adams) 뉴욕시장은 기존 5번가의 구조는 높은 통행량을 수용하기 어려우며,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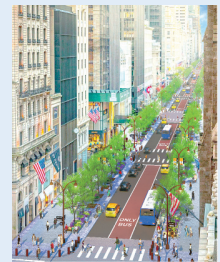
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번가의 인도 공간을 46% 확대하고 차량 통행 차선을 5개에서 3개로 줄여 보행자 안전을 개선할 계획이다. 또한 안전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교차로 길이를 3분의 1로 줄이게 되며, 23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1,858m<sup>2</sup>의 가로 화단(planter)을 추가해 녹지를 확충할 예정이다.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좌석과 조명 또한 설치한다.

5번가 개선을 위한 계획설계는 2025년 여름까지 마련될 예정이며,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으나 뉴욕타임스(New York Times) 등 현지 매체는 계획 승인 후 2028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 애덤스 시장은 "이 계획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을 제공하며, 지역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"고 전하였다.



5번가 재설계 구간

출처: 출처: Future of Fifth 홈페이지. <https://futureoffifth.com/>  
 (검색일: 2024.12.2.)



5번가 재설계 초안

출처: 뉴욕시 홈페이지. <https://www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769-24/mayor-adams-future-fifth-partnership-transformation-fifth-avenue-world-class->  
 (검색일: 2024.11.18.)